

추억 속의 쥐포구이



구울 화 연구팀장

2006년 봄, 아버지는 30년 1개월의 근속기간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하셨다. 고용불안이 만연한 시대에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마친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가족들은 입을 모았다. 본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 날, 사장님에게 꽃다발을 받으시는 아버지는 사장님보다 더 여유만만하고 당당해보였다. 하지만 딱 그날 하루 뿐, 바로 다음날부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은퇴 후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생활이었다.

가족들 중 아무도 아버지의 퇴직 이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므로, 잠시 힘들더라도 금세 잘 극복하시겠거니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장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진다는 불안, 이제는 사회에서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자괴감과 더불어, 아침에 일어나도 나갈 곳이 없다는 무력감에 상상 이상으로 괴로워하셨다.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하신 말씀에도 “돈을 못 버니까 무시 한다”고 불같이 화를 내셨다. 내가 보기에 어머니의 툭툭 던지는 듯 한 말투는 아버지가 돈을 버실 때나 안 버실 때나 한결 같았는데, 아마 평생을 들어온 그 말투마저 거슬릴 정도로 괴로움에 시달리셨던 듯하다.

그 시절, 아버지의 유일한 낙은 나와 함께 야구를 보러 다니시는 거였다. 다행히도 아버지와 나에게는 함께 십 수 년 간 열렬히 응원해온 팀, 한화 이글스가 있었고, 마침 그 해의 한화 이글스는 신인투수 류현진의 활약으로 우승을 다투며 승승장구 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주말이 되면 쥐포구이와 맥주를 싸들고 전국각지의 야구장을 유람하며 열심히 응원했다. 휴대하기 편리하고 짭짤한 맛이 맥주와도 잘 어울리는 쥐포는 야구장에 안성맞춤이었다. 시즌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쥐포 굽는 실력과 주량도 나날이 늘어갔으며, 한손에 쥐포, 한손에 맥주를 든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우리 부녀의 모습이 지상파 방송에 생생하게 중계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난 아무래도 좋았다. 함께 야구를 볼 때의 아버지는 예전처럼 당당하고 쾌활해보였고, 내게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었다.

그 해 한화 이글스는 딱 한결음이 부족해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다. 결승전을 보고 돌아오는 기차 안, 그야말로 쥐포 씹을 힘까지 다 소진하며 응원했던 아버지와 나는 축 처진 채 창밖만 바라보며 힘없이 앉아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참 신기하지 않니. 팀마다 보면 꼭 나이 많은 선수들이 몇 명 있잖아. 분명 힘은 젊은 선수들보다 떨어지고 매일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오면 자기 몫을 충분히 해주곤 하지. 그러고 보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쓸모없어지는 건 아니야. 다만 예전하고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젊은 사람은 잘 할 수 없는, 꼭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법이거든”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다. 쥐포처럼 거칠고 메마르고 투박한 손이었다. 아버지의 젊었던 날에, 강하고 단단했던 그 손으로 에이스나 홈런타자를 꿈꾸었을 아버지는, 이제는 단 한 타석이라도 그라운드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 직장생활 3년차이던 나는 아버지의 그런 간절함을 조금은 알 것도 같아 가슴 한구석이 무디게 아팠다.

이듬해 아버지는 모 공사에 재취업을 하셨다. 매일같이 KTX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는데다가 예전에 하시던 일보다 훨씬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노련한 경험이 필요한 일인가보다. 몇 해가 지난 지금도 아버지는 본인에게 주어진, 한때 간절히 바랐던 이 타석에서 본인의 몫을 다하기 위해 누구보다 즐겁게 일하신다. 그리고 나는 가끔 그 시절 우리의 야구장을 떠올려 본다. 사는 동안 한번쯤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을 건디게 해주었던 그때 그 야구장의 함성과 달콤하면서도 씹살했던 쥐포구이의 맛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손을 맞잡고 열띠게 응원하던 그 날들은 내게도 더없이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하며 빙긋이 웃곤 한다.



대전한화야구장 (출처 : 한화이글스 홈페이지)